■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57-190.
http://doi.org/10.17948/kcs.2022..96.157

고려후기 백련사와 송 천태종 교류*
—진정국사와 송 延慶寺의 교류를 중심으로—

박용진(朴鎔辰)**

목 차

1. 머리말
2. 송대 천태종 연경사의 동향
3. 백련사 진정국사 이전 연경사 교류
4. 백련사 진정국사의 연경사 교류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고려 백련사와 송 천태종 연경사의 교류에 대해 진정국사의 『호산록』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발견된 『사명존자교행록』의 「延慶寺歷代住持」 계보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교류 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고려 불교계와 연경사의 첫 교류기록은 의천이 입송구법시 연경사를 방문하여 사명중립과 교류한 것이다. 1126년에는 김부식의 사신단이 연경사의 제6대 주지인 원조

* 본고는 2022년 4월 30일 전남 강진군 백련사가 주최한 「제7회 백련사의 문화와 전승」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또한,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의 구성과 자료 해석, 여송간 사상적 영향, 교류사적 의의, 『사명존자교행록』의 가치나 의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교시에 감사드린다.
**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범광을 찾아 불서를 전하기도 하였다. 무신집권기에는 최이로 추정되는 최승상이 제27대 주지 불광 법조와 교류하였으며, 1258년-1262년 무렵에는 진정국사가 법조의 문하이자 제31대 주지인 법언과 교류하였다. 진정국사는 수선사의 탁연을 매개로 연경사의 법언과 교류하였고, 법언의 사승은 불교계를 주도한 법조였다. 법조는 승관의 고위에 있었고 남송 정권에 밀착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신집권기 정국을 주도한 최이와 교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교 이외 정치외교적 교류도 추정된다.

진정국사는 1258년 수선사의 탁연을 통해 연경사에서 보낸 「불설명」, 「조사찬」, 「정토원기」를 받아보았고, 1262년에는 연경사 尊宿이 찬술한 「법화수품찬」을 받아 보았다. 이 「법화수품찬」에 차운하여 「법화수품찬」을 지어 연경사에 보냈다. 또한, 진정국사는 진관의 「정토원기」를 보고 연경사 정토원의 풍광과 수행자를 찬탄하는 시문을 찬술했고, 史浩의 「明州寶雲四祖師贊」에 대해 조사찬을 찬술하였다. 또한 『草菴錄』의 日本國師遙獻金字蓮經事을 보고 「金字法華」를 지었고, 宗曉의 『寶雲振祖集』에 수록된 「法雨堂題名」을 보고 「法雨堂」이라는 시를 지어 찬하였다.

백련사와 연경사의 교류는 진정국사의 「법화수품찬」 교류 이후 고려 정부의 출륙천도, 삼별초의 진도 주둔과 함께 백련사도 타격을 받은 1270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백련사, 진정국사, 연경사, 탁연, 법언, 불광법조, 법화수품찬.

1. 머리말

고려시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불교 교류는 고려전기 11-12세기초 대각국사 의천의 입송구법, 고려후기 13세기말-14세기의 원나라 교류와 함께 전개된 불교 교류가 비교적 상세하다. 그러나 백련사가 대두하던 시기인 12세기말-13세기 전반기의 고려는 무신집권기와 몽고의 침입이 있던 격변기로 송을 비롯한 국제 교류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한다. 이는 고려후기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자료의 散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백련사 진정국사의 『호산록』』에는 남송 연경사와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거 백련사와 송 불교계 교류에 대해 검토되었지만, 남송 연경사의 인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못해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련사와 송 불교계의 교류에 대해서는 허흥식이 진정국사 문집인 『호산록』의 역주와 함께 진정국사의 생애와 사상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진정국사의 동아시아 국가 간의 사상교류라는 주제로 연경사와의 교류에 대해 검토하였다.[1] 서지학 및 불교학 연구에서는 진정국사가 송 연경사의 교류의 일환으로 지은 「법화수품찬」에 대해 찬술시기와 그 사상을 분석하였다.[2] 불교미술사 연구에서는 백련사의 사상과 신앙경향에 대해 연경사와 교류하면서 十六妙觀 수행을 위한 관경변상도를 제작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3] 기타 전론으로 다룬 연구는 잘 찾아지지 않고 고려와 송의 교류사 연구나 자료 소개 가운데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이고,[4] 백련사 진정국사와 교류한 연경사의 인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의 연구로는 송 연경사와 그 인물에 대해 연경사의 계승과 사명 지례의 문류에 대한 연구가 있고, 신출 자료인 『사명존자교행록』의 부록인 「연경사 역대주지」를 소개하고 그 자료의 의의를 분석하기도 하였다.[5]

이상과 같이 진정국사와 송 연경사의 교류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

---

1) 허흥식, 『眞靜國師와 湖山錄』, 민족사, 1995, 85-91면. 이는 보완하여 「대몽항쟁기 백련결사의 사상과 국제적 대응」, 제3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발표집, 만덕산 백련사, 2013년 11월 22일에 발표.

2) 박혜승, 『眞靜國師의 『湖山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36면에서 진정국사는 1258년 「조사찬」, 1262년 「법화수품찬」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법화수품찬」을 지어 연경사에 보냈고, 1268년 경 두 번째 「법화수품찬」을 지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견해로는 석혜영, 「백련사 전래의 眞靜國師『湖山錄』에 대한 연구」, 『백련사 전래 전적에 대한 서지 및 사상적 연구』, 제6회 백련사의 문화와 전승 학술대회자료집, 2021이 있다. 불교학적 연구로는 이선이, 「湖山錄 <法華隨品讚> 用事에 나타난 天台思想」, 『천태학연구』 9,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6에서 천책의 〈법화수품찬〉은 1262년과 1272년 2회 찬술을 제시하였지만 근거는 미상이다. 또한 오지연, 「고려시대 법화삼매참법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백련사계와 묘련사계의 법화참법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01, 2022에서 진정국사의 「법화수품찬」에 대한 법화참법의 분석 가운데 찬술시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3) 이승희, 「고려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미술사학연구』 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1323년 知恩院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20, 불교미술사학회, 2015.

4) 자료 소개는 何溎, 「延慶院圓照法師塔銘」, 『乾道四明圖經』 11(장동익, 『宋代麗史資料輯錄』, 서울대 출판부, 2001, 434-435면); 張東翼,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 동북아역사재단, 2009; 李鎭漢, 『高麗時代 宋商往來 硏究』, 景仁文化社, 2011; 박용진, 「고려시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海上 佛教交流」, 『한국학논총』 5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9.

5) 大久保良順, 「延慶寺等の繼紹と四明法智大師の門流」, 『大正大学学報』 35, 大正大学出版部, 1942; 林鳴宇, 「新出資料延慶寺歷代住持譜の意義」, 『釋學硏究』 87, 2009.

지만, 남송 연경사와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특히 신출자료인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사명존자교행록』의 부록으로 수록된「延慶寺歷代住持」계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연경사역대주지」계보를 통해 진정국사의 교류 대상인 연경사의 인물과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진정국사『호산록』의 교류 관련 기록과 인물에 대해「연경사 역대주지」계보를 활용하여 백련사 진정국사와 송 연경사의 교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진정국사는 송 연경사 제31대 주지인 법언과 교류하였다. 법언의 저술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승인 불광 법조 등 연경사의 법계에 유의하면서 연경사와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고려후기 남송과의 불교 교류, 나아가 백련사 진정국사와 교류한 송의 천태종의 천태교관이나 사상 경향 등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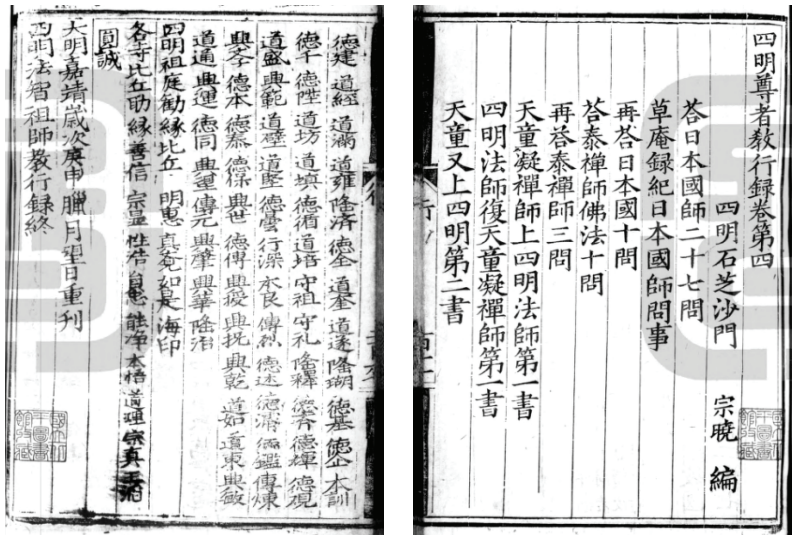
2. 송대 천태종 연경사의 동향

송 천태종 延慶寺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中国 浙江省 宁波市 海曙区에 위치하였다.[6] 연경사는 1009년(大中祥符 2) 지례(960-1028)가 그의 나이 50세에 保恩院을 세운 것에서 비롯하며, 1010년(대중상부 3) 황명에 의해 延慶院으로 改額하였다. 이때 지례는 황제에게 주청하여 연경사를 시방주지제로 하고 천태교법을 강론하였으며, 1028년(天聖 6)에 입적하였다.[7] 지례 이후 연경사는 송대 천태종의 중심 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四明尊者教行録』에 수록된「延慶寺歷代住持」계보를 통해 고려 불교계와 교류한 연경사의 인물이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6) 영파는 당대에는 明州로 칭해졌고, 1381년(洪武 14)에 영파로 개칭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명을 沿用하고 있다.

7)「尊者年譜」,『四明尊者教行錄』권1(『대정장』46, 858면).


四明尊者教行録卷第四
四明石芝沙門 宗曉 編
荅日本國師二十七問
草庵録紀日本國師問事
再荅日本國十問
荅泰禪師佛法十問
再荅泰禪師三問
天童凝禪師上四明法師第一書
四明法師復天童凝禪師第一書
天童又上四明第二書

〈사진 1〉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四明尊者教行錄』 권수와 권말


延慶寺歷代住持
第一祖中興教觀法智大師四明尊者第二代住持尚賢法師廣智尊者
第三代鑑文法師神智尊者第四代中立法師 賜號明智尊者
第五代宗正法師 賜號文慧尊者第六代梵光法師 賜號圓照尊者
第七代覺先法師澄照尊者第八代道深法師 賜號圓辨尊者
第九代智連法師覺雲尊者第十代法容法師妙蓮尊者
第十一代道因法師安住尊者第十二代有朋法師牧菴尊者
第十三代子親法師寶月尊者第十四代慧詢法師月堂尊者
第十五代可觀法師竹菴尊者第十六代明哲法師則菴尊者
第十七代處躬法師一菴尊者第十八代妙雲法師慈寶尊者
第十九代善月法師栢庭尊者第二十代如晦法師契菴尊者
第二十一代淨慧法師悅菴尊者第二十二代思義法師鑑堂尊者
第二十三代元粹法師古雲尊者第二十四代文虎法師嘯君尊者
第二十五代了緣法師伊堂尊者第二十六代允憲法師同菴尊者
第二十七代法照法師佛光尊者第二十八代覺先法師剡源尊者
第二十九代如海法師百川尊者第三十代如約法師竹坡尊者
第三十一代法言法師應菴尊者第三十二代守愚法師古石尊者
第三十三代宗敬法師耕雲尊者第三十四代清寧法師安道尊者
第三十五代妙聲法師毒鼓尊者第三十六代德聞法師碧溪尊者
第三十七代若圭法師復翁尊者第三十八代文价法師石林尊者

〈사진 2〉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四明尊者教行錄』 수록 「延慶寺歷代住持」

위의 「延慶寺歷代住持」 계보는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본 『四明尊者教行錄』에만 확인되는 자료이다.8) 이 「延慶寺歷代住持」는 연경사의 개조인 제1조 中興教觀

法智大師 四明尊者에서부터 제104대 常誌法師 松石尊者까지 약 550여 년간에 걸쳐 주지를 역임한 113명의 승려의 법호와 법명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사명존자교행록』은 명 1560년(嘉靖 庚申)에 제103대 도감겸주 덕신법사와 제104대 상지법사가 중간한 것으로 현전본은 권4에서 권7까지 4권 1책의 영본이다. 본서의 「연경사역대주지」 계보는 1560년 重刊 단계에 정리된 것으로 연경사의 창건으로부터는 약 5백년의 거리가 있어 사료의 활용에는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료적 한계는 있지만 『불조통기』 등 천태종 관련 사서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연경사역대주지」 계보를 통해 고려 불교계와의 교류 당시 송 연경사의 동향이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려후기 백련사 진정국사가 교류한 법언의 활동 시기를 전후한 제40대 주지까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延慶寺 歷代 住持 및 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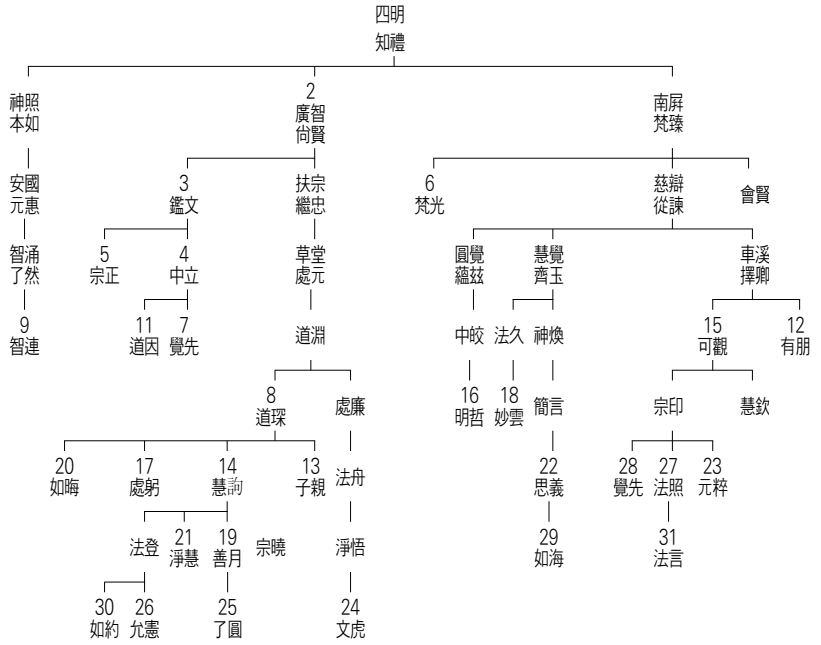
대수	주지명	사법관계	대수	주지명	사법관계
1조	四明法智	延慶寺 開祖	21대	悅菴淨慧	廣智7세, 14대月堂門人
2대	廣智尙賢		22대	鑑堂思義	南屛6세
3대	神智鑑文		23대	古雲元粹	南屛6세
4대	明智中立	廣智3세, 3대神智門人	24대	嘯岩文虎	廣智8세
5대	文慧宗正	廣智3세, 3대神智門人	25대	伊堂了緣	廣智8세, 19대柏庭門人
6대	圓照梵光	南屛2세(1064-1143)	26대	同菴允憲	廣智8세
7대	澄照覺先	廣智4세, 4대明智門人	27대	佛光法照	南屛6세
8대	圓辯道琛	廣智5세	28대	剡源覺先	南屛6세
9대	覺雲智連	神照5세	29대	百川如海	南屛7세, 22대鑑堂門人
10대	妙蓮法容	不詳	30대	竹坡如約	廣智8세(逸堂癸法師法嗣)
11대	安住道因	廣智4세, 4대明智門人(?-1167)	31대	應菴法言	南屛7세, 27대佛光門人
12대	牧菴有朋	南屛4세	32대	古岩守愚	不詳,佛光門人(古岩正因?)

8) 『四明尊者教行錄』 중국국가도서관 http://read.nlc.cn(검색일: 2021.10.15.). 『사명존자교행록』과 이에 부록된 주지 계보의 의의는 林鳴宇, 「新出資料延慶寺歷代住持譜の意義」, 『釋學研究』 87, 2009, 95-109면 참조.

13대	寶月子親	廣智6세, 8대圓辯門人	33대	耕雲崇敬	廣智9세, 25대伊堂門人
14대	月堂慧詢	廣智6세, 8대圓辯門人	34대	安道淸寧	廣智9세, 26대同篪門人
15대	竹菴可觀	南屛4세	35대	毒鼓妙聲	南屛7세, 27대佛光門人
16대	則菴明哲	南屛5세	36대	碧溪德聞	南屛7세, 27대佛光門人
17대	一菴處躬	廣智6세, 8대圓辯門人	37대	復翁若圭	天台系統
18대	慈實妙雲	南屛5세	38대	石林文价	南屛7세, 27대佛光門人
19대	柏庭善月	廣智7세, 14대月堂門人	39대	雪零行海	南屛7세, 27대佛光門人
20대	契菴如晦	廣智7세	40대	月溪善良	廣智10세

위의 〈표 1〉 延慶寺 歷代 住持 및 사법관계를 알기 쉽게 계보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延慶寺 歷代 住持 및 사법 계보도[9)]



9) 『佛祖統紀』 권18 「諸師列傳」 및 권24 「佛祖世繫表」에 의거하였으며, 본고의 사법계보는 『불조통기』를 중심으로 島地大等, 『天台教學史』, 明治書院, 1929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지례의 문하는 5백인 이상에 이르고 연경사의 단월 수는 5천에 달하였으며, 지방관이나 명사들의 후원으로 명주의 명찰이 되었다.[10] 연경사는 송·원대 약 3백여 년간에 걸쳐 천태종의 중심 사원이 되었다. 연경원은 1144년(紹興 14)에 8대 주지 圓辯 道琛이 재건하여, '院'을 바꾸어 '寺'를 칭하게 되었다. 연경사의 운영은 전국의 인물을 모셔 주지로 삼는 시방주지제로 운영되었지만, 실제는 위의 〈표 2〉 사법 계보도와 같이 지례의 문류인 '四明三家'라 불리는 廣智 尚賢·南屛 梵臻·神照 本如의 문류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 가운데 廣智 尚賢과 南屛 梵臻의 문류가 번갈아 주지하는 윤번주지제로 운영되었고, 神照 本如의 문하에서는 제9대 覺雲 智連만이 확인된다.[11]

지례의 입적 이후 廣智 尚賢이 연경사의 제2대 주지가 되어 계석하였다. 상현의 문하에는 扶宗 繼忠과 神智 鑑文이 대표적이며, 신지 감문이 제3대 주지가 되었다. 감문의 문하에는 명지 중립과 종정 등이 있었고, 각각 연경사 제4대와 제5대 주지를 역임하였다. 명지 중립의 문하에는 澄照 覺先·安住 道因이 있었고, 각선이 제7대 주지였다. 도인은 제11대 주지이며, 자호가 草菴, 법호는 安住子이다. 명지 중립이 보운사에 있었을 때 참학하였으며, 만년에 연경사에 주석하였는데, 1167년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이 무렵 제11대 연경사 주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술로는 『關政論』, 『輔正解』, 『草庵錄』, 「念佛心要頌」 등이 전한다.[12]

계충은 지례와 상현의 일상 법문을 기록한 『二師口義』 등을 저술하였다. 계충의 문하에는 草堂處元(1030-1105?)과 神智從義(1042-1092)가 있고, 종의는 광지에서 나와 지례의 설에 반대하여 후산외로 분류되며, 저술로는 『摩訶止觀

10) 「四明法智尊者実録」, 『四明尊者教行録』 권7(『대정장』 46, 920면), "稟法領徒者 三十鯨人 (…) 登門入室者, 納計四百七十八人 鯨之務学方来 不可勝紀 (…) 其被化者 常満五千大衆."

11) 林鳴宇, 앞의 글, 105-107면에서 「연경사 역대주지」 계보에 대해, 지례 문하의 광지계와 남병계의 輪住體制, 연경사에서 지례교학의 전승은 명대중기까지 지속, 1대에 복수의 주지가 존재, 계보의 연속성 검증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12) 『佛祖統紀』 卷15(『대정장』 49, 243면), "法師道因 自號草菴 (…) 晩主延慶 (…) 嘗著關政論 (…) 述輔正解."; 『釋門正統』 권6(『만신속장』 권33, 329면), "號安住子 (…) 教門艸菴錄十卷行世 乾道丁亥(1167)四月十七示滅."; 「明智法師寶雲住持」, 『寶雲振祖集』(『만신속장』 권56, 706면), "元祐間住延慶 (…) 太守躬請出住寶雲 (…) 太守又命住延慶不得辭 時年六十歲."; 「念佛心要頌」, 『樂邦文類』 卷5(『大正藏』 47, 220면).

義例纂要』·『金光明玄義順正記』·『金光明經文句新記』·『천태사교의집해』 등이 있다. 처원은 『止觀義例隨釋』을 지어 종의의 『摩訶止觀義例纂要』를 반박하고 지례 상승의 법문을 현양하였다.[13] 처원의 문류에는 제8대 道琛이 배출되었고, 그 문하에는 寶月子親·月堂慧詢·一菴處躬·指南仲韶·契菴如晦 등의 명장을 배출하였다. 제14대 月堂 慧詢의 문하에는 柏庭 善月·悅菴 淨慧·逸堂 法登·石芝 宗曉 등이 있고, 연경사 제19대 주지인 백정선월은 『仁王疏記』·『楞伽通義』·『三大部格言』·『山家緖餘集』 등을 저술하였고, 법등은 『圓頓宗眼』·『金錍十義』·『教義』, 종효(1151-1214)는 『四明教行錄』을 편찬하여 지례의 일대기를 전하였고, 『寶雲振祖集』·『樂邦文類』·『樂邦遺稿』를 편찬하였다. 선월의 문하에는 제25대 주지인 伊堂 了圓이 있고, 逸堂 法登의 문하에서 26대 同菴 允憲, 30대 竹坡 如約이 배출되었다.[14] 또한 법등의 문하인 元啓를 사법한 宗淨 문하에서 志磐이 나와 『불조통기』를 지었다.

남병 범진의 문류에는 慈辯 從諫·超果 會賢·群峯 太初·圓照 梵光 등이 있고, 범진의 문류가 연경사의 주지가 되는 것은 제6대 圓照 梵光부터이다. 범광은 1114년(政和 4)에 태수 呂淙의 청으로 연경사에 들어와 1129년(建炎 3)까지 주석하였다. 이 시기에 범광은 제6대 연경사의 주지로 주석하면서 고려 불교계와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慈辯 從諫의 문하에는 車溪 擇卿·慧覺 齊玉·圓覺 蘊慈 등이 있고, 1086년에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전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圓覺 蘊慈의 문하에 法照 中皎가 있고, 그 문하인 則菴 明哲이 연경사의 제16대 주지가 되었다. 慧覺 齊玉의 문하에는 淸修 法久·澄覺 神煥 등이 있고, 법구의 법사인 慈室 妙雲 제18대 주지가 되었으며, 신환의 법사에 覺菴 簡言이 있고, 그 문하에 鑒堂 思義가 제22대 연경사 주지, 사의의 문하인 百川 如海가 제29대 주지가 되었다.

車溪 擇卿(?-1108)의 문하에는 牧菴 有朋·竹 菴可觀 등이 있었고, 유붕이

13) 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1, 245-246면.
14) 「山家教典志」 권11, 『佛祖統紀』 권25(『대정장』 49, 258-260면). 본고의 연경사 관련 인물의 저술에 대해서는 「산가교전지」 등을 참조.

제12대, 가관이 제15대 연경사 주지가 되었다. 가관은『山家義苑』·『竹菴草錄』 등을 찬술하여 지례의 학설을 조술하였다. 그의 문하에 北峯 宗印·自得 慧欽 등이 있었고, 종인은『北峯教義』를 지었다. 그리고 종인의 문하에 古雲 元粹·佛光 法照·剡源 覺先·梅峯 梵奎·鎧菴 吳克己 등이 있었고, 연경사 제23대 주지 원수는『四教儀備釋』을 지었고, 제27대 주지 법조는『法華三大部讀教記』를 편찬하였다. 종인의 문하인 剡源 覺先이 법조를 이어 제28대 주지가 되었다.

법조(1185-1273)는 남송(1127-1279) 영종과 이종대 조정의 권력자 史衛王(1164-1233)의[15] 천거로 雲間(현재 上海 松江县 일대) 延慶寺, 鳳山 褒親寺에 주석하였다. 특히 사위왕은 "逮乎宋季史衛王奏立五山十剎"[16]이라 하여 남송대 五山十剎制를 주청하여 세웠는데, 법조가 주석한 사원 가운데 寧波 延慶寺(白蓮寺)를 비롯한 錢塘 上天竺寺、下天竺寺, 松江 延慶寺가 오산십찰에 속한다. 이어 법조는 丞相 史永公의 천거로 사명 연경사에 주지하였다. 그는 1217년 33세에 천태 대자사 등을 거쳐 연경사에 주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제27대 연경사 주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의 저술로는『法華三大部讀教記』가 있고, 1256년(寶祐 4)에 서문을 쓴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17]

법조는 1259년(咸淳 元年) 9월 조칙에 의해 상천축사의 주지가 되었다. 이때 법당의 繪事를 새롭게 하고, 先帝의 御書 '白雲'을 걸었다고 하여, 白雲堂으로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법조는 광지계 지반이 편찬한『불조통기』를 교정하였다.[18]『불조통기』의 편찬은 1258년(寶祐 6)부터 시작하였고, 1271년(함순 7) 지반의 후기에 의하면, 1265년에 이미 월파산에서『불조통기』의

15) 史衛王의 이름은 史彌遠 , 字同叔 ; 別称 : 史相、사후 衛王으로 추봉되었고, 시호는 忠献이다.

16)「住持淨慈禪寺孤峰德公塔銘」,『宋文憲公護法錄』卷2(『嘉興藏』21), "逮乎宋季史衛王奏立五山十剎."

17) 法照,『法華三大部讀教記』권1(『만신속장』28, 1면, "記讀教 自以記遺忘 非謂傳乎人也 嘉定初 在佛隴方草創 已有傳之者矣 東山南湖 傳之者又多 晩在天竺 隨講修飾 於經疏重言諸師異同則刪去 學者有請鋟木以正舊傳 何如 曰可傳乎寶祐四年春甲子天台晦巖法照." 한편 불광법조를 비롯한 南屛系의 교학에 대해서는 安藤俊雄,『天台思想史』, 法藏館, 1959, 194-209면 참조.

18)『佛祖統紀』는 종감의『釋門正統』및 元穎의『宗元錄』에 기초하여 증보 산삭하고 史傳의 제작 방법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석가에서 지례까지의 1불 28조를 본기로, 지례 이전의 발출 諸祖를 세가에, 지례의 제자인 광지상현 이하 門流를 열전에 수록했다.

製版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지반이 1269년(함순 5)에 지은 『불조통기』의 서문에서, 자신이 책을 완성한 뒤 법조가 주석하고 있는 상천축사 白雲堂으로 찾아가 考校를 청하였다고 한다.[19] 또한 『불조통기』의 「서문」 말미에 기록된 교정자 5명 가운데 '校正特賜佛光法師左右街都僧錄主管教門公事住持上天竺教寺賜金襴衣法照'라고 기록되어 있다.[20] 이로 미루어 법조는 1259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左右街都僧錄主管教門公事'라는 승관에 있으면서 상천축사에 주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조의 문하로는 應菴 法言을 비롯하여 子庭 師訓・東陵 智逈・北溪 德聞 등 다수가 확인된다.[21] 이 가운데 應菴 法言이 '南屛下第七世 佛光照法師法嗣'로 기록되어 있고, 연경사 제31대 주지가 되었다. 법언의 활동은 「延慶寺歷代住持」 계보 이외에는 관련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3. 백련사 진정국사 이전 연경사 교류

고려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입송구법 이후 송 불교계와의 교류는 송상을 중개로 전개되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무신집권기에도 송상의 왕래가 확인되지만, 불교 교류의 기록은 단편적인 기록만이 확인된다.[22] 그 대표적인 것이 백련사 진정국사가 수선사의 탁연을 매개로 한 송 천태종 연경사와의 교류이다. 이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고려 불교계와 연경사의 교류 인물을 중심으로 송의 천태종 계보를 정리한 뒤, 고려전기 의천에서부터 고려후기 백련사 진정국사까지 연경사와의 교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 불교계와 송 천태종 교류 계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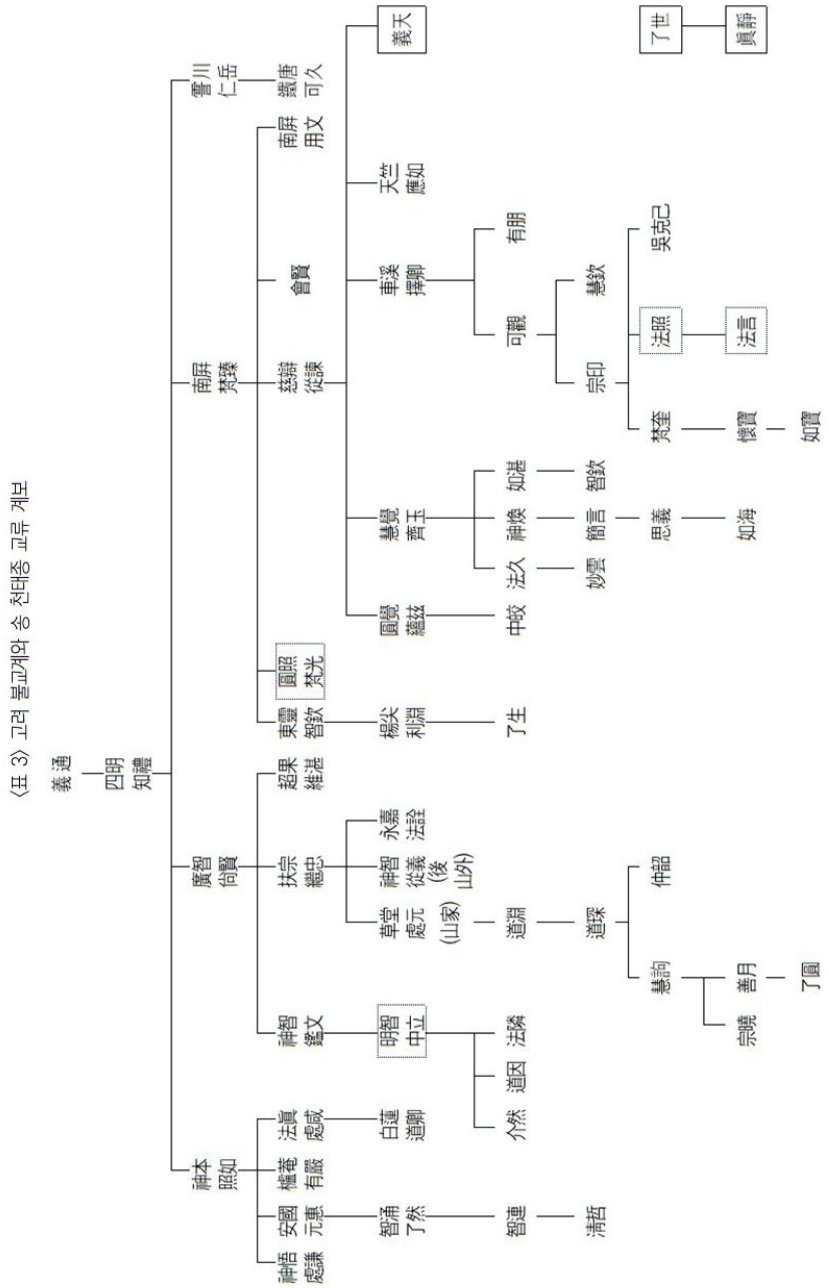
---

19) 「佛祖統紀序」, 『佛祖統紀』 권1(『대정장』 49, 129면), "書成即負笈 詣白雲堂 仰求佛光法師為之考校 而同志之士 共謀鋟版以期流布."

20) 「佛祖統紀序」, 『佛祖統紀』 권1(『대정장』 49, 130면).

21) 『佛祖統紀』卷18(『대정장』 49, 237면); 『佛祖統紀』 卷24(『대정장』 49, 256면).

22) 박용진, 「고려시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해상 불교교류」, 『한국학논총』 5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9, 101-135면.


〈표 3〉 고려 불교계와 승 천태종 교류 계보
義通
四明
知禮
神本
照如
神悟
處謙
安圖
元惠
智湧
了然
智連
淸哲
慮智
尙賢
法眞
處咸
白蓮
道卿
介然
道因
神智
鑑文
明智
中立
法隣
超果
維湛
扶宗
繼忠
草堂
處元
(山家)
神智
從義
(後山外)
永嘉
法詮
道淵
道琛
慧詢
善月
了圓
宗曉
仲韶
東曇
智欽
圓照
梵光
楊尖
利淵
了生
南屏
梵臻
慈辯
從諫
圓覺
繼玆
慧鏡
普玉
中皎
法久
神煥
如湜
妙雲
簡言
智欽
會賢
車溪
擇卿
可觀
有朋
宗印
慕欽
思義
梵奎
如海
懷寶
如寶
南屏
用文
天竺
應如
法照
吳克己
法言
義天
了世
眞靜
雪川
仁岳
鐵唐
可久

고려후기 백련사의 진정국사가 교류한 연경사는 11세기부터 고려 불교계와의 교류 관련 기록이 찾아진다. 고려전기 1085년 의천의 입송구법시 연경사 방문이 확인되며, 1126년에는 김부식의 사신단이 연경사의 원조 범광을 찾았다. 또한, 고려후기에는 최승상이 불광 법조와 교류하였으며, 1258-1262년 무렵에는 백련사 진정국사와 연경사 법언과 교류하였다. 이하에서는 관련 교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전기 연경사 관련 기록은 대각국사 의천의 입송구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의천은 1086년 귀국에 즈음하여 연경사를 찾았으니 다음과 같다.

> 元祐 2년(1086)에 入朝하여 求法하고 돌아갈 즈음에 明州에서 聖旨를 받들고 延慶院 帳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主客郎 楊傑이 法師와 서로 만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주선하였다. 당시에 三學院에 거하는 法隣이라는 승려가 옛 敎乘 문자 약간을 얻었는데, 이 승려가 운운.[23]

의천은 1085년 4월 입송하여 송의 수도인 개봉을 비롯하여 항주 등지에서 송 불교계의 주요 사원을 찾아 고승과 교류하는 한편 불교 성적을 순례하였다. 위의 『대각국사외집』 자료는 1086년 5월 귀국에 즈음하여 명주의 연경사에 머물렀을 때의 일이다. 의천은 관반사 주객원외랑 양걸의 소개로 삼학원에 주석하고 있던 法隣을 만나 불도와 불교 교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천이 연경사에 머물던 시기 교류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천은 사명에 이르렀을 때 송 조정에서는 명지 중립과 그의 제자 혜조 법린을 관반으로 하였다.[24] 중립과 법린은 천태종 山家派 神智 鑑文의 法嗣로 廣智의 3세와 4세이며, 중립은 연경사의 제4대 주지가 되었다. 중립이 관반이 된 것은

---

23) 「大宋沙門法隣書」, 『大覺國師外集』 卷7(『韓國佛教全書』 4, 580면), "元祐二年 入朝求法 回次明州奉聖旨 延慶帳幄安 泊主客郎楊傑許與法師相會談道 此時住三學院 僧法隣得古教乘文字若干 此僧云云." 이하 『韓國佛教全書』는 『한불전』으로 略記한다. 또한, 본고의 한국 찬술 문헌 검색과 인용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온라인 검색(https://kabc.dongguk.edu)을 활용하였다.

24) 『佛祖統紀』 卷14(『大正新修大藏經』 49, 223면), "入中國問道 至四明郡以明智慧照館接之."; 『釋門正統』 第8(『卍新纂續藏經』 75, 353면). 이하, 『大正新修大藏經』은 『대정장』, 『卍新纂續藏經』은 『만신속장』으로 약기한다. 본고의 불전 검색과 인용은 中華電子佛典協會의 온라인 검색(https://cbetaonline.dila.edu.tw)을 활용하였다.

사명의 대표적 천태종 사원인 연경사의 주지였기 때문이고, 법린은 그의 문도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때 의천은 조정에서 파견한 관반사인 양걸, 중립 등과 함께 천태산으로 가서 천태 지자탑원에 참례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걸이 기문을 쓰고 중립이 비석을 세웠다.[25] 이후 귀국한 의천은 송나라 천태종의 법린과 서신을 통해 교류하였고, 1097년 무렵에는 그를 초청하여 국청사에서 천태교관의 홍양을 추진한 일이 있다.

다음의 연경사 교류 관련 기록은 고려 사신단 김부식이 사명 연경사를 찾아 고려의 불서를 전하는 등 송 불교계의 고승과 교류한 내용이다.

> 정강 초에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국경에 도착하여 찾아뵙고 말하기를 "국왕께서 법사의 안부를 묻고 불도와 법덕이 높음을 추앙하며 첨례하셨고 삼가 사신을 보내 법의 1습과 본국의 원효법사가 지은 화엄소론 2백권을 드립니다."라고 하였다.[26]

1126년(인종 4) 11월 김부식과 이주연 등 고려 사신단은 송 황제의 즉위 하례를 위해 입송하였다.[27] 고려 사신단은 송의 관문인 명주에 도착하여 연경사에 주석하고 있던 圓照 梵光(1064-1143) 법사를 찾아 고려왕이 경모하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法衣 1점과 원효대사가 찬술한 論疏 200권을 전하였다.[28] 이 시기 범광은 제6대 연경사의 주지였던 시기로 추정되는데,범광은 1114년(政和 4)에 태수 呂淙의 청으로 연경사에 들어가 1129년(建炎 3)까지 주석하였다.[29] 남병범진의 문하에서 처음 연경사의 주지가 된 때이기도 하다. 이상의 기록과 같이 고려 인종대 사신단이 연경사 주지를 찾은 것은 범광이 송 불교계의 고덕이었던 점 이외에 연경사가 고려와 송 불교계의 교류를 담당하는 주요 사원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0]

---

25)「靈通寺大覺國師碑文」『大覺國師外集』卷12(『한불전』 4, 592면), "行至天台 登定光佛隴 觀智者 親筆願文 禮於塔前 誓傳教于東土 楊公志之 沙門中立立石."

26)『佛祖統紀』 卷15「法師梵光」條(『대정장』 49, 230면), "靖康初 高麗貢使 及境來謁云 國王問訊法師 翹仰道德 無從瞻禮 謹遣使獻 法衣一襲及本國曉法師所著華嚴疏論二百卷."

27)『高麗史』 권15, 世家15 仁宗 4年條, "九月乙丑 遣樞密院副使金富軾 刑部侍郎李周衍 如宋賀登極."

28) 何溥, 「延慶院圓照法師塔銘」, 『乾道四明圖經』 11(장동익, 『宋代麗史資料輯錄』, 서울대 출판부, 2001 초판 2쇄, 434-435면 재인용).

29)『佛祖統紀』 卷15(『대정장』 49, 230면), "政和四年春 太守呂淙以南湖請 (…) 建炎三年以老謝去."

다음의 연경사 교류 관련 기록으로는 고려후기 최승상이 남병 범진의 문류인 자변 종간계 불광 법조와 교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법조법사]의 나이 33세에 陽淡으로 나와 주석하였고 다시 천태 大慈寺에 주석하였으며 이어 성수사로 옮겼다. 사위왕이 천거하여 雲間의 연경사에 주석하였고 이어 봉산의 褒親寺로 옮겼다. 승상 사영공이 천거하여 사명의 연경사에 주석하였다. 海·順 두 대사가 일본에서 와서 청강하였다. 법조가 지은 『천태삼대부독교기』를 청하고 그의 화상을 그려 귀국하였다. 고려 최승상도 서신을 보내 불법의 대지를 묻고 구조도를 구하였으며, 법조법사에게 縹綫鉢 및 金硯匣, 향약을 보냈다.[31]

위의 『속불조통기』의 기록은 고려의 崔丞相이 법조에게 편지를 보내 불법 대의를 묻고 「구조도」를 청한 내용이다. 법조는 제27대 연경사의 주지였고, 1243년부터 1262년까지는 상천축사의 주지였다.[32] 따라서 이 시기는 법조가 연경사에 주석한 1217년 이후 1243년 상천축사 주석 이전의 어느 시기로 추정된다. 고려 최승상이 고려의 무신 집정자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기적 상관성으로 보아 무신집권기 집정 최이(집정 1219-1248)가 해당될 수 있다.

최승상은 법조에게 불법의 대지를 질문하는 한편 「천태구조도」를 구하였다. 불법의 대지가 불교 일반에 관한 내용이었는지 천태종의 교관이었는지는 확인키 어렵다. 법조는 대장경을 3번 열람하였고, 선·교·율 3종의 승려가 불법을 듣고 해오하였으며, 황궁에서 『화엄경』과 『반야경』을 강경하기도 하였다.[33] 특히 법조는 『法華三大部讀教記』를 편찬할 정도로 천태교학에 뛰어났기 때문에 천태교관일 가능성도 있지만 추정에 그친다.

---

30) 박용진, 앞의 글, 2019, 115면.

31) 『續佛祖統紀』 권1 法師法照 條(『만신속장』 75, 739면), "年三十三出住陽淡 改住天台大慈 迁聖水 史衛王擧住雲間延慶 繼迁鳳山褒親 丞相史永公擧住四明延慶 海順二師自日本來聽講 請所撰讀教記 繪師像歸國 高麗崔丞相亦致書問佛法大旨 乞九祖圖 且遺師縹綫鉢及金硯匣香藥."

32) 『杭州上天竺講寺志』卷3(『中國佛寺史志彙刊』 26, 76면, "二十四代 佛光法照法師 淳祐三年 二十五代 石室智觀法師 景定三年 (…) 二十九代 佛光法照法師 咸淳六年 再住."

33) 『續佛祖統紀』 卷1, 「法師法照」 條(『만신속장』 75, 739면), "精進教乘 三閱大藏 (…) 凡禪教律三宗學徒雲集 聞者多所解悟 召見延相殿講華嚴經 (…) 東宮成引見後右殿講般若經."

또한, 「구조도」는 천태종 동토 9조의 계보 및 화상도를 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9조는 龍樹, 北齊慧文, 南岳慧思, 天台智顗, 章安灌頂, 法華智威, 天宮慧威, 左溪玄朗, 荊溪湛然이다.[34] 고려 백련사에서도 천태 9조로 荊溪 湛然이 언급되고 있어, 천태종의 조사 계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5] 이상의 교류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 고려에서도 법조의 교학이 높이 평가되었고 관련 정보가 교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조와 함께 北峯 宗印의 문도였고 같은 시기에 활동한 오극기는 고려 의천의 입송구법을 언급한 바 있어,[36] 이 기사로부터 의천의 입송구법 활동과 그의 천태 직계 조사인 자변 종간의 문법이나 교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조 역시 의천 이래 고려 불교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을 법하다. 이렇듯 11세기 의천 이래 고려후기 진정국사의 연경사 교류까지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약 180여 년간 교류가 지속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제27대 연경사 주지 법조와 그의 법사이자 제31대 연경사 주지였던 법언 역시 고려 불교계와 교류하였다. 위의 고려 불교계와 법조의 교류는 진정국사와 교류한 법언에까지 연속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정국사의 연경사 교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백련사 진정국사의 연경사 교류

1) 진정국사와 연경사의 교류

진정국사와 남송 연경사의 교류 관련 자료는 그의 문집인 『호산록』에 산견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4) 『佛祖統紀』 卷6(『대정장』 49, 177면); 士衡敬編, 『天台九祖傳』(『대정장』 51, 면97). 『杭州上天竺講寺志』卷4(『中國佛寺史志彙刊』 26, 103면), "高麗崔丞相亦致書問佛法大旨 乞九祖圖 , 且遺師漂瓷鉢盂及金觀音香藥."; 「釋法照傳」, 『新續高僧傳』 권3 (『大藏經補編』 27, 48면); 『續佛祖統紀』 권1(『卍新續藏』 75, 739면).

35) 士衡이 1208년에 편찬한 『天台九祖傳』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고려 전래는 분명치 않다.

36) 『釋門正統』(『만신속장』 75, 354), "鎧菴曰 東坡論高麗狀貼黃云 體問得慧因 主僧淨源本是庸人 只因多與往還 致商人等於高麗國妄行談說 是致義天遠來從學 本院厚獲施利 而淮浙官司遍遭擾亂 私謂義天求法非聊爾 僧淨源亦有功教門 東坡為國論事一期言耳."

① 중통 3년 임술(원종 3년, 1262) 5월 초 6일에 법운 탁연 선노가 전하여 보인 바의 대송 延慶寺 여러 존숙의 「법화수품찬」 1축을 받았다. 문구마다 모두 부처와 조사의 精髓이고 일대사의 보불이어서 빛이 해외에서도 빛나니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나는 일찍이 만덕산 백련사에 참여하여 원묘국사를 배알하고 보현도량을 처음 세웠다. 그러므로 이에 묘전을 발현하여 항상 속으로 외며 일체를 권발하였다. 하물며 지금 보게를 얻어 보게 되니 기쁨이 그치지 않아 억지로 운을 맞추고 연서하여 멀리 헌정하였다. 비록 연운만리이고 해륙은 천중이나 도안이 서로 비침을 생각하면 한 실오라기의 거리도 떨어지지 않았다.37)

② 지난 무오년(고종 45, 1258) 8월 상순 산인 탁연이 대송 연경사에서 보낸 佛舌誥 祖師讚 淨土院記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삼가 계수하고 기쁘고 경사스러워 탄미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제 『초암록』 가운데 일본국사가 멀리서 금자법화경을 보낸 일과 『진조집』 가운데 법우당 명명의 연기를 함께 취하여 다시 『수품찬』에 차운하니, 이는 다만 찬탄하려는 것이지 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대국의 佛祖의 盛事를 흠모하여서 일뿐이다.38)

위의 인용문 자료는 『호산록』에 수록된 순서대로 연경사와의 교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용문 ①의 자료에서 진정국사는 1262년 5월 6일에 탁연에게서 남송 연경사의 존숙들이 지은 『법화수품찬』 1축을 받아 보았다. 이를 받은 진정국사는 『법화수품찬』에 차운하여 『법화경』 「서품」에서 「권발품」에 이르는 28품에 대해 『법화수품찬』을 지어 연경사로 보냈다. 이때 연경사로부터 받은 「법화수품찬」은 연경사의 여러 존숙이 지은 것을 모아 1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 ②의 자료를 정리하면, 진정국사가 1258년 8월 상순에 산인 탁연으로부터 남송 연경사에서 보낸 「불설명」, 「조사찬」, 「정토원기」를 받은

37)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27면), "中統三年壬戌五月初六日 伏承法雲慧禪老所傳示 大宋延慶寺諸尊宿法華隨品讚一軸 句句皆佛精祖髓 黼黻一大事 光耀海外 何其韙歟 某早叅萬悳山白蓮社 頂謁圓妙國師 始立普賢道場 故此開顯妙典 常於念念荷擔 勸發一切 況今獲覩寶偈 栢悅無已 强和成韻語 聯書遙獻 雖煙雲萬里 海陸千重 想道眼相照 不隔一絲毫許." 이하, 『호산록』의 국역은 허흥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를 참조하였으며,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38)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29-30면), "越歲在戊午八月上旬 山人卓然 以大宋延慶寺所寄 佛舌誥 祖師讚 淨土院記 來示予 謹稽首欣慶 歎美不足 今并取草庵錄中 日本國師遙獻金字蓮經事 振祖集中法雨堂命名緣起 復次隨品讚韻□ 聊申讚歎 非敢好事也 盖亦向慕大國佛祖之盛事云爾."

뒤에, 『초암록』의 「日本國師遙獻金字蓮經」과 『보운진조집』의 「法雨堂題名」을 더한 전체 5수에 대해 「법화수품찬」에서 차운하여 시문을 찬술하였다.[39] 진정국사는 「법화수품찬」에서 차운하여 찬술하였기 때문에 1258년 8월을 전후하여 연경사에서 받은 「법화수품찬」이 있었는지의 문제가 있다. 위의 인용문 ①과 같이 1258년에 받은 「불설명」 등 5수에 대해 1262년 이후의 어느 시기에 1262년에 받은 「법화수품찬」에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 ③의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③ 빈도는 재주는 없지만 홍경을 발원한지 장차 40년이 되어간다. 현지를 찬양하고 대사를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인순하여 겨를이 없었다. 전번에 대송 연경사 수품찬을 보고 暗短의 식견으로 찬영을 지어 해상에 맡겨 먼저 제존숙좌하에 부쳐드렸다. 지금 또 다시 일축을 만든 것은 鄙見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장차 묘법난사를 현현하여 비록 겁진을 지나더라도 산호해묵을 가지고는 금문의 반구의 만분의 일을 찬미하는데도 부족할 것이다.[40]

위의 ③은 진정국사가 다시 「법화수품찬」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전번에 「법화수품찬」을 지어 연경사에 보냈다고 한 것은 1262년 5월에 탁연으로부터 「법화수품찬」을 받아 보고 화답한 것이며, 1262년 5월 이후에 보낸 것을 말한다. 이어 다시 「법화수품찬」을 찬술하였는데, 이때는 '發願弘經 將四十年'이라 하여 홍경을 발원한 지 40년이 되어 간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언제였을까. 진정국사는 1228년(고종 15) 5월 여름에 천인을 비롯한 출가에 뜻을 함께한 2인과 전남 강진의 만덕산 백련사를 개창한 요세의 문하에 들어갔다. 진정국사의 출가로부터 起算하면 1268년을 전후한 시기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그는 1223년 18세에 국자감시에 합격하였고, 1225년(20세) 예부시에 급제하였지만, 실직을 얻지 못하자 현실에 회의하던 중 좌주 청하상국의 권

---

39) 『호산록』에는 佛舌, 金字法華, 淨土院, 法雨堂, 天台智者(大蘇山修法華三昧 등 6제), 寶雲祖師(讃 등 6제), 法智尊者(求師受業始學寶雲 등 6제), 慈雲懺主(負笈求師 誓學聖教 등 5제), 讃者畧陳方寸 등 전체 28제가 수록되어있고, 「법화수품찬」의 28품에서 차운하여 찬술하였다.

40) 「更和法花隨品讃并序」,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32면), "貧道不佞 發願弘經 將四十年 切欲讃揚玄旨 發揮大事 而因循未暇 昨見大宋延慶寺隨品讃 不香暗短 聊賡讃詠 近託商船 先已寄呈諸尊宿座下 今又更成一軸者 非圖見異於人也 將以顯妙法難思 雖歷刼塵 山毫海墨 不足讃美於金文半句之萬一爾."

유로 『법화경』을 사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출가하려는 생각으로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41] 이 해인 1225년에서 기산하면 1265년이 된다. 이상과 같이 홍경 발원 40년의 기산년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1225년이나 1228년으로 기산하여도 40년이 되는 해는 1265년에서 1268년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선사와 연경사의 교류가 참고된다. 백련사 진정국사와 연경사의 교류를 중개한 탁연은 연경사에서 받은 『佛居記』를 수선사 원오국사 천영에게 바친 기록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 또한 대송 연경사의 전천태교관 사문 법언이 그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불거기』를 본조에 보냈다. 운유자 탁연이 대사에게 바쳤다. 대사는 찬사를 지어서 그것에 응수했다. 뛰어난 내용과 아름다운 표현은 여러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다. 탁연이 그 찬사를 베껴 해상을 통해 법언에게 보냈다. 법언은 이를 받아보고 아름다움에 탄복하여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하여 돌에 새기고 여러 첩의 탁본을 만들어 보내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사를 우러러보기를 이와 같이하였다.[42]

위의 내용은 수선사 원오국사 천영의 비문인 「원오국사비」의 기록으로 탁연은 송 연경사의 傳天台教觀 사문 법언으로부터 연경사 소장의 『불거기』를 받아 천영에게 바쳤다고 하였다. 이에 천영은 찬사를 지어 응수하였고, 탁연이 찬사를 필사하여 연경사의 법언에게 보내자 법언이 석각하여 그 탁본을 다시 보냈다고 하였다. 법언에 관해 「원오국사비」에서는 '전천태교관 사문'이라 하여 연경사 주지로 기술되지는 않았다. 다만 연경사 여러 존숙에게 「법화수품찬」을 찬술토록 주선하였다면 주지 혹은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앞의 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법언은 제27대 주지 불광 법조의 법사로 제31대 주지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법조가 주지한

---

41)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42면), "幸我丹桂主人淸河相國 恩重鑄額 言高興點 仍使予書金字蓮經 始見諸佛世尊 (…) 切欲從浮圖氏 誦妙經修妙."

42) 허흥식, 「佛臺寺 圓悟國師碑」 『高麗佛教史硏究』, 일조각, 1986, 686면, "又大宋延慶寺 傳天台教觀沙門法言 以本寺所藏佛居記寄本朝 雲遊子卓然獻于師 師作贊以應之 奇辭麗藻 駭人之目 然寫其贊 附商馳寄於法言 言受之嘉歎 願壽其傳 卽鋟諸貞珉 打數本而送之 其爲異邦之敬服如此."

시기 이래 연경사의 운영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법조와 고려 최상국의 교류에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국사와 연경사의 교류는 법언이 주지하던 시기의 연경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국사의 「법화수품찬」 교류 이후 백련사와 연경사의 교류 관련 기록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진정국사의 『호산록』에는 1268년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 金惛가 진정국사에게 보낸 시문에 '寄呈龍穴大尊宿丈下'라고 한 것에서, 이 무렵 진정국사는 백련사를 떠나 용혈암에 주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43] 1270년부터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출륙 천도와 함께 삼별초의 난 등이 겹치는 시기였고, 1270년 8월 삼별초의 진도 주둔과 함께 백련사도 타격을 받았다.[4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후 백련사의 진정국사와 송 연경사의 교류는 1270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진정국사와 연경사의 교류 내용

진정국사는 1258년 탁연을 통해 연경사에서 보낸 「佛舌銘」, 「조사찬」, 「정토원기」을 받아보았고, 1262년에는 「법화수품찬」을 받아 보았다. 또한 이 시기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탁연이 천영에게 보낸 『佛居記』 역시 교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진정국사가 연경사와의 교류를 통해 보았을 정토원기, 조사찬, 초암록, 법화수품찬, 법우당 등의 내용을 현전 자료 가운데에서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진정국사가 찬술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延慶寺淨土院記」

연경사의 「정토원기」는 송대 待制 陳瓘이 1107년(大觀 元年)에 찬술한 「延慶寺淨土院記」와 朴菴首座 淸哲이 1169년(乾道 5)에 찬술한 「延慶重修淨土院記」가 있다. 진정국사가 본 「정토원기」는 진관이 지은 「延慶寺淨土院記」(이하,

43) 金惛, 「寄呈龍穴大尊宿丈下」, 『眞靜國師湖山錄』卷3(『한불전』 12, 25면).
44) 李穎,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25면), "時猘犬吠主 聚居珍島 駭椋沿海州縣."

「정토원기」)에 해당한다. 이 「정토원기」의 찬자 진관은 字는 瑩中, 號는 了翁이며, 등과하여 正言에 이르렀다. 그는 재상 章惇을 논하는 소를 올린 것으로 인해 사명으로 유배되었고, 이때 명지 중립을 만나 천태종지를 심득하여 명지법사와 천태종의 일념삼천법을 논하기도 하였으며, 「觀堂淨土院記」를 짓게 되었다.[45]

「정토원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례의 3세인 중립이 연경사에 주지하던 시기에 그의 문하인 介然이 惠觀・仲章・宗悅 등과 함께 十六觀堂 정토원을 건립하기 위해 모연하였고, 7년이 걸려 1099년(元符 2)에 낙성하였다. 이 정토원은 60여 칸의 규모로, 가운데는 보각을 건립하여 장육 미타상을 세우고 협시로는 관음과 세지를 안치하였다. 그리고 주위에는 16개의 방실을 둘렀는데, 각 실의 밖에는 三聖의 상을 布列하였고, 그 안은 禪觀의 장으로 하였으며, 殿宇는 蓮池에 임하게 하였다.[46] 이 정토원의 낙성일에 개연은 千佛에 대한 공양 의례를 설행하면서 불은에 보답하기 위해 三指를 태웠다. 이후 연경사의 정토원에는 원근의 정토 수행자가 오고 가며 항상 16실을 채워 수행에 정진하는 도량이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法藏比丘의 本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연경사 주지 중립이 평소 충실한 행업과 정토관을 수행하였으며, 개연의 정토원 건립에 기여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이상의 「정토원기」의 내용을 통해 연경사에는 십육관당 정토원을 창건하여 천태정토교를 수행하는 도량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례 이래 천태와 정토가 결합된 台淨 융합의 사상 경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토원기』라 할 수 있다. 이후 연경사의 십육관당 정토원도 훼손과 중건이 이루어졌고, 1169년(乾道 5)의 중수기인 朴菴首座清哲 「延慶重修淨土院記」가 확인된다. 이 중수기에는 대보각을 세우고 주위에 16실을 만들어 경전에 의거 십육관당이라 명하였고, 세월이 오래되어 당우가 훼손되자 1157년(紹興 정축)에 清潤이 주지 각운법사에게 중수의 모연

45) 「諸師列傳」第六之五, 『佛祖統紀』卷15(『대정장』 49, 225면)의 明智立法師法嗣 陳瓘 條.
46) 「延慶寺淨土院記」, 『樂邦文類』卷3(『대정장』 47, 185면), "今延慶西隅尚有隙地 若得錢二千余万 構屋六十余間中建宝閣 立丈六弥陀之身 夾以觀音勢至 環為十有六室 室各両間 外列三聖之像 内為禪観之所 殿臨池水."

의 허락을 받아 4년에 걸쳐 일신하였고, 그 기문은 1169년에 이루어졌다.[47] 위의 정토원기 가운데 진정국사가 본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진관이 지은 기문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진관의 「정토원기」에 대해 『樂邦文類』에서는 「延慶寺淨土院記」의 말미에 『草菴錄』을 인용하여 그 문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연경사 제11대 주지 草庵 道因이 지은 『초암록』에서는 진관의 기문이 정토의 온전함을 표현한 것으로 그의 문장이 뛰어남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립의 문도인 晁說之가 찬한 『明智法師碑磅礴』이 진관의 「정토원기」와 함께 천태종의 뛰어난 문장으로 세상에서 찬미된다고 하였다.[4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연경사에서 이 「정토원기」를 보낸 것은 연경사의 천태종의 교학과 실천을 반영한 천태정토교의 성립과 전개를 알 수 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인 「정토원기」를 보낸 측면과 한편으로는 『초암록』의 기록과 같이 진관의 「정토원기」가 연경사를 비롯한 당시 천태 정토신앙과 사상을 온전히 담은 뛰어난 문장이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경사 「정토원기」에 대한 진정국사의 대응은 『호산록』에 실린 「정토원」이라는 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정경 초관에 해가 비스듬히 지니 참으로 타방 정토에 생애를 기탁하고
> 일천 존상을 실내에 함께 안치하니 丈六의 高人이 각기 집을 차지하네
> 전인이 바람을 맞으니 향기가 실내에 가득하고 연꽃이 출수하니 크기가 수레바퀴와 같고,
> 이 연꽃의 구품이 잠시가 아니니 함께 상품화로 태어난 것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49]

진정국사의 시문 「정토원」은 진관의 「정토원기」를 보고 지은 것이다. 일천 존상의 안치와 '장육 고인'의 비유는 연경사 정토원의 낙성과 함께 천불을 공양한 것에 대한 표현이고, 장육의 고인은 정토원의 보각의 장육 아미타불을

47) 宗曉, 『樂邦文類』卷3(『대정장』 47, 186면).
48) 「延慶寺淨土院記」, 『樂邦文類』卷3(『대정장』 47, 185면), "草菴錄曰 (…) 了翁不數百字 籠罩說說 得淨土之全 豈非天資高者也 (…) 至於晁公(說之)作明智法師碑磅礴 台宗文章遒勁 世盛推美 誠與了翁之記並駕矣."
49) 「淨土院」, 『眞靜國師湖山錄』卷3(『한불전』 12, 30면), "定境初觀落日斜 眞他淨土寄生涯 一千尊像同安室 丈六高人各占家 篆印當風香滿院 蓮花出水大如車 此蓮九品非聊爾 何幸同生上品花."

비유하여, 십육관당에서의 수관자를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각에는 연지가 둘러있기 때문에 연꽃이 가득한 정토원의 풍광을 묘사하였고, 이 연꽃의 구품과 상상품의 비유는 미타 9품 가운데 至誠이 上上이라는 기문에 대응한 묘사라 할 수 있다.[50] 진정국사는 연경사 정토원의 풍광과 수행자를 아울러 칭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국사의 '十六觀想'에 기반한 천태정토신앙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요세의 『관무량수경묘종초』에 기반한 천태정토신앙이나 '십육관당도'를 언급한 연구가 있지만 진정국사의 신앙이나 사상경향에 대해서는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祖師讚」

「조사찬」은 송 연경사에서의 전본이 없어 분명치 않지만,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는 『사명존자교행록』에 수록된 會稽郡王 文惠公 史浩(1106-1194)가 찬한 「明州寶雲四祖師贊」이 있다. 이 「명주보운사조사찬」은 天台智者, 寶雲義通, 四明法智, 天竺慈雲의 네 조사에 대한 찬문이다. 진정국사의 『호산록』에 수록된 「조사찬」은 천태종의 조사 가운데 천태지자, 보운조사, 법지존자, 자운참주의 4인에 대한 찬문으로 사호가 지은 「사명보운사조사찬」에 수록된 네 조사에 대응된다. 이로 미루어 진정국사가 연경사에서 받은 「조사찬」은 사호가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호의 「조사찬」은 天台智者禪師・寶雲通公法師・四明法智尊者・天竺慈雲法師의 순서로 매 찬문은 4언 1구 전체 40구로 이루어졌다. 찬문의 말미에는 보운교원의 주지 宗瑩이 쓴 「조사찬」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후기에는 史浩가 보운사의 조사 유지를 방문하여, 지자와 보운대사상을 보고, 보운의 두 제자인 法智 知禮와 慈雲 遵式을 함께 모실 당을 만들어 네 조사의 상을 새로 만들도록 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이에 보운원 주지 宗瑩은 振祖堂을 만들고 상을 설치한 뒤 사호에게 찬문을 청하여 편액을 걸었다.[51]

진정국사의 「조사찬」은 『호산록』 권3에 天台智者・寶雲祖師・法智尊者・慈雲懺主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이 「조사찬」은 사호의 것과 달리 각 조사별

50) 『樂邦文類』卷3(『대정장』 47, 185면), "如來之敎九品 以至誠為上上."
51) 史浩, 「明州寶雲四祖師贊」, 『四明尊者敎行錄』卷4(『대정장』 46, 931-932면).

6개 소제목 아래 7언율시 8구로 이루어졌으니 다음과 같다.

〈표 4〉『호산록』 권3 소재 진정국사「조사찬」

조사별	소제목 및 내용
天台智者	①大蘇山修法華三昧,②瓦官寺開法華妙義, ③華頂峰上降伏天魔, ④玉泉寶閣說摩訶止觀, ⑤大極殿上講仁王般若佛隴道場 解淨名經 靈石海岸 開涅槃百句, ⑥陳隋兩國 授工宮頓戒 放生池上 講金經流水 西天東國 咸仰爲師
寶雲祖師	①讚(미상), ②錢公奉爲戒師, ③顧氏捨家爲寺, ④中興天台敎觀, ⑤異人多出門下助揚妙化, ⑥始末神異彰灼四衆欽仰
法智尊者	①求師受業始學寶雲, ②秉筆造論毗贊聖敎, ③長年結一萬人 念彌陀佛 求生淨土, ④三年結一十人 修法華懺 然身供養, ⑤玄悳播遠, ⑥神異告終
慈雲懺主	①負笈求師 誓學聖敎, ②開講法花 異類來聽, ③長修妙懺 眞應彰著, ④著文毗贊玄化, ⑤結社廻向淨土,
讃者	讃者畧陳方寸

진정국사의 「조사찬」은 위의 〈표 4〉와 같이 각 조사별 사적에 대해 소제목을 설정하여 찬술하였다. 이는 사호의 「조사찬」과는 찬문의 형식과 내용을 달리한 것으로 진정국사의 천태종 조사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반영한다. 진정국사는 「천태지자찬」의 도입부에서 찬술을 위해 그가 참고한 전적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태지자의] 聖迹은 제5조가 찬술한『別傳』및 二聖인 道宣과 法射, 二賢인 法論과 智果의 기록, 그리고 여러『傳錄』에 갖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 거듭 칭양하려 하지만 찬문과 같이 해가 청천을 칭송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이제 참주 자운준식이 찬한 예찬문의 뜻에 의하여 다만 子德을 말할 뿐이다.[52]

위와 같이 진정국사는 천태종 제5조인 章安 灌頂이 지은『隋天台智者大師別傳』과 도선의 「隋國師智者天台山國淸寺釋智顗傳」[53] 등을 비롯한 法射・法論・智果의 천태지자 관련 기록을 언급하였다. 이로 보아 진정국사는 이들 기록

52)『眞靜國師湖山錄』卷3(『한불전』12, 30면), "聖迹 具如第五祖所撰 別傳及二聖道宣法射 二賢法論智果所記 并諸傳錄 更欲稱揚 如讃曰日褒靑天 豈可殫記也耶 今且依式懺主禮讃意 聊申子德耳."

53)『續高僧傳』권17(『대정장』50, 564면).

을 참고하여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정국사는 '참주 자운준식이 지은 예찬문의 뜻'에 따라 서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예찬문은 자운준식이 지은 「天台智者大師齋忌禮讚文」[54]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분명치 않다. 이외 고려에 유통되었을 천태 지자 관련 찬술로는 의천의 『교장총록』에 "禮讚一卷 亡名, 智者大師傳一卷 顔真卿述, 別傳一卷 灌頂述, 智者碑文一卷 梁肅述"[55] 등이 수록되어 있지만, 관련성은 분명치 않고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草菴錄』의 日本國師遙獻金字蓮經事

『草菴錄』은 연경사 제11대 주지 草庵 道因(?-1167)의 저술로 현전하지 않지만, 일부 천태종 관련 문헌에서 자료가 산견된다.[56] 도인은 명지 중립에게 배웠고, 지례의 『지요초』를 읽고 깊이 깨달아 스스로 지례의 사법이라 칭했다. 『불조통기』에는 「諸師雜傳」에 입전되어있다. 그는 『關政論』을 지어 당시 선인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고, 『輔正解』는 당시 율사가 『관경』을 亡解하는 잘못을 배척한 것이라 한다.[57] 이들 책은 『초암록』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하지 않는다.

진정국사는 그의 『호산록』에서 "今并取草庵錄中日本國師遙獻金字蓮經事"[58]라 하여, 『초암록』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59]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이 『사명존자교행록』(이하, 『교행록』)에 수록되어 있어, 이를 『호산록』의 내용과 비교하기로 한다.

> 일본의 국사가 일찍이 문도를 보내 바다 건너 법지에게 20가지를 질문하였고, 법지가 그에 답하였다. 모두 이치가 깊었다. 뒤에 광지가 법석을 잇자 다시 그

54) 「天台智者大師齋忌禮讚文」(『대정장』 46, 966-968면).
55) 『新編諸宗教藏總錄』 권1(『대정장』 55, 1169면).
56) 허흥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88면에서는 송 천태종승 가관이 수록한 자료집인 『竹庵草庵錄』이라 추정하였다. 한편, 可觀의 찬술로는 楞嚴集解, 楞嚴補注, 蘭盆補注, 圓覺手鑑, 金剛通論, 金剛事苑, 山家義苑, 竹菴草錄이 있다(『佛祖統紀』 권15(『大正藏』 49, 228면).
57) 『佛祖統紀』 권21 諸師雜傳第七 法師道因條(『대정장』 49, 243면).
58)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29-30면).
59) 한편, 『사명존자교행록』에는 「草庵錄紀日本國師問事」가 있어, 진정국사는 이 『교행록』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호산록』의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초암록』을 직접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도 소량 등 2인을 파견하여 금자법화경을 보냈다.[60]

위의 자료는 『교행록』에 수록된 것으로, 『초암록』에 일본의 법사가 천태 교학에 대해 법지대사 지례에게 20가지를 질의하였고, 뒤에 광지 상현이 법석을 이어 연경사의 주지가 되었을 때 일본에서 다시 紹良 등 2인을 보내 금자법화경을 가지고 가서 예를 표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응하는 진정국사의 『호산록』의 시문은 다음과 같다.

서신을 보내 안부를 묻고	銀山木道傳芳訊
금자 법화경으로 작은 정성을 표하네	金字蓮經表寸情
일본의 왜객이 가져온 것이 비록 승묘하지만	倭客齎歸雖勝妙
탁연대사가 부쳐 드린 것이 더욱 명정하네	然師寄獻轉分明[61]

진정국사는 해동의 제국에서 금자법화경을 보낸 일에 대해, 일본의 승려 소량 등이 기증한 것보다 고려 탁연이 부친 것이 도리어 더욱 명정함을 언급하였다. 탁연이 고려에서 사경한 금자 『법화경』을 송의 연경사 법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4) 「法雨堂」

보운 의통이 주석한 전교원이 보운원으로 개액된 후 1191년(紹熙 辛亥)에 주지 宗瑩이 대법당을 건립하고 竹院禪師 寶曇에게서 당호를 받아 '법우당'으로 하였다. 종효가 이 당명이 인몰될까 염려하여 「法雨堂題名」을 지었다.[62] 진정국사는 宗曉의 『寶雲振祖集』에 수록된 「法雨堂題名」을 보고, 「法雨堂」이라는 시를 지어 찬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

60) 「草庵錄紀日本國師問事」, 『四明尊者教行錄』卷4(『대정장』 46, 889-890면), "日本國師嘗遣徒抗海 致問二十於法智 法智答之 皆深於理致也 後廣智嗣法席 復遣其徒紹良等二人 齎金字法華經."

61) 「金字法華」, 『眞靜國師湖山錄』卷3(『한불전』 12, 30면).

62) 「法雨堂題名」『寶雲振祖集』(『만신속장』 56, 707면). 한편, 宗瑩 및 寶曇의 법명에 대해서는 「寶雲院利益長生庫記」, 『四明尊者教行錄』卷7(『대정장』 46, 933면, "瑩嗣東堂元慧師 瑩公名宗瑩云 紹熙三年七月旦日橘洲老衲寶曇記."

부처님의 초전법륜은 소희 연간이었고 힘을 다해 경영하니 실로 애련하네
보담노사가 이름지어 그 덕을 칭양하였고 종효대사가 붓을 들어 이 인연을 썼네
법의 은택을 두루 입은 人華는 가고 枯槁衆生이 聖種性을 渾成하여 돌아오네
원근이 모두 소생하여 分限이 있음을 아니 보운이 해동의 하늘에서 일어나네[63]

위의 「법우당」의 시에서 보담의 제명과 종효의 법우당 제명 연기 찬술에 대해 칭송하였다. 이어 보운 의통이 해동 출신으로 송나라에 전교하였고, 이제는 그 교화가 해동에서 일어남을 언급하였다. 진정국사는 종효가 편찬한 『보운진조집』을 통해 「법우당제명」을 보았다.[64] 이 『보운진조집』은 의통을 비조로 지례가 천태종을 중흥한 사적 가운데 주로 의통과 관련된 20편의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보운진조집』은 『사명존자교행록』에 이어 1203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어느 시기에 고려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국사는 의통의 송대 천태종의 활동과 사상을 접하였고, 이를 「조사찬」에 활용한 것이다.

(5) 「法華隨品讚」

「법화수품찬」은 『법화경』 28품에 대한 찬문으로, 진정국사가 보았을 연경사에서 보낸 「법화수품찬」은 확인되지 않는다. 송 연경사에서 보낸 「법화경수품찬」은 '延慶寺諸尊宿法華隨品讚一軸'이라 하여 여러 존숙이 찬술한 「법화수품찬」을 모아 1권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 연경사 승려가 찬술한 다수의 「법화수품찬」이 수록되었겠지만 현전 자료는 없고, 또한 송대에 찬술된 「법화수품찬」도 현전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정국사는 송 연경사의 존숙에게 「법화수품찬」을 보냈고, 2수의 「법화수품찬」이 『호산록』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법화수품찬」은 품명과 차운에 일부 차이가 있는데, 품명에 대해서는 比喩品을 譬喩品, 藥草喩品을 藥草品, 五百授記品을 五百弟子授記品 등으로 기록하였지만 원품명 축약의 차이에 불과

63) 「法雨堂」,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30면), "願輪初轉紹熙年 竭力經營實可憐 曇老命名揚厥德 曉師摛筆記玆緣 霑濡普被人華去 枯槁渾成聖種還 遠近咸蘇知有分 寶雲興自海東天."

64) 『寶雲振祖集』(『만신속장』 56, 701-707면); 『四明尊者教行錄』卷7(『대정장』 46, 928-934면). 『大正藏』본의 저본은 일본 1670년(寬文 10) 간본이며, 『만신속장』본의 저본은 미상이다. 『보운진조집』이 『사명존자교행록』의 권7 뒤에 부록된 것은 寬文 간본이다.

하고, 차운에 있어서도 方便品의 차운자인 '便・傾・情・明・平'가 '說・傾・情・明・平' 등으로 바뀐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진정국사는 「법화수품찬」에 서문을 써서 찬술의 배경과 의도를 밝혔다. 진정국사는 1262년 5월 연경사 존숙들의 「법화수품찬」 1축을 받고 그 찬문에 대해 문구마다 모두 佛祖의 精髓이고 일대사의 보불이어서 해외인 고려에서도 빛난다고 찬탄하였다. 이어 그는 만덕산 백련사에 참여하여 원묘국사를 배알하고 처음 보현도량을 세운 이래 『법화경』을 발현하여 항상 책임으로 여기며 승속 일체를 勸發하기를 계속하였다고 하였다.[65] 또한, 영명 연수의 글을 인용하여 『법화경』은 諸佛의 降靈의 체이며 군생이 득도하는 원천으로 독묘독존하고 진선진미하므로 '兼但對帶'의 설이 없고, 특히 千聖이 찬양하여도 『법화경』의 묘지를 궁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법화현의』에서 '此經無復兼但對帶 正直無上之道 故稱為妙法'[66]이라 하여 『법화경』이 無上의 묘법임을 설명한 것과 같다. 이어 그는 『법화경』의 홍경을 발원한 지가 40년이 되지만 현지를 찬양하고 일대사를 발휘하는데 부족함을 토로하였다. 그가 「법화수품찬」을 찬술한 것은 묘법난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67] 또한, 그는 송 연경사 승려들과 「법화수품찬」을 교류하는 것은 道眼의 相照라 하여 고려와 송의 천태교관의 상호 교류임을 표현하였다.

한편, 『법화경』에 대한 수품찬류의 글은 송대를 비롯 고려전기 의천의 『교장총록』에도 그 전존이 확인되지 않는다.[68] 고려 일대 「법화수품찬」은 진정국사 이외 백련사 제2대 주법인 정명국사의 「妙法蓮華經摠讚」과 「妙法蓮華經隨品別讚」이 현전한다. 이들 「법화수품찬」에 대해 법화참법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69] 양 찬문에 대한 종합적 비교나 진정국사가 『법화수

65)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27면).
66) 『妙法蓮華經玄義』 卷1上(『대정장』 33, 682면).
67) 「更和法花隨品讚并序」, 『眞靜國師湖山錄』 卷3(『한불전』 12, 32면).
68) 『新編諸宗教藏總錄』 권1(『대정장』 55, 1167면). 『화엄경』의 수품찬으로 『교장총록』에는 "隨品讚十卷 御製, 隨品讚科一卷 志實述", 『원종문류』 권22 「讚頌雜文類」에 遼天佑皇帝御製의 「大方廣佛華嚴經隨品讚」이 수록되어 있다.
69) 오지연, 「고려시대 법화삼매참법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백련사계와 묘련사계의 법화참법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01, 2022, 157-188면.

품찬』을 찬술시 정명국사 찬문의 영향 등 관련성도 향후 검토 과제이다.

5. 맺음말

본고는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와 몽고항쟁기에 전개된 불교결사인 백련사와 남송 천태종 연경사의 교류에 대해 백련사 제4대 주법 진정국사의 『호산록』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백련사 진정국사와 교류한 연경사의 인물이나 활동에 대해 최근 확인된 『四明尊者教行錄』의 부록 「延慶寺歷代住持」 계보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교류 활동을 검토하였다.

고려 불교계와 연경사의 교류는 11세기부터 고려 불교계와의 교류 관련 기록이 찾아진다. 고려전기 1085년 의천은 입송구법시 연경사를 방문하여 제4대 주지인 사명 중립과 그의 문도인 혜조 법린과 교류하였다. 1126년에는 김부식의 사신단이 연경사의 제6대 주지인 원조 범광을 찾아 고려의 불서를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후기에는 무신집권기 최이로 추정되는 최승상이 제27대 연경사 주지 불광 법조와 교류하였으며, 1258년-1262년 무렵에는 백련사 진정국사와 법조의 문하이자 연경사 제31대 주지인 법언과 교류하였다.

고려 불교계와 교류한 남송 연경사는 지금의 浙江省 宁波市 海曙区에 위치한다. 사명지례가 1009년에 보은원을 세웠고, 이듬해 1010년에 황명에 의해 연경원으로 개액되었다. 1028년 지례의 입적 이후 연경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의 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고려 불교계와 교류한 인물과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확인된 『四明尊者教行錄』에 수록된 「延慶寺歷代住持」 계보를 통해 천태종 사서인 『불조통기』를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3세기에 진정국사와 교류한 연경사 법언은 제31대 주지였고, 그의 사승은 남송대 불교계를 주도한 불광 법조였다. 법조는 승관의 고위에 있었고 공경과의 교류가 있어 남송 정권과 밀착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당시 고려는 최씨 무신 집권기였다. 대몽 항전의 정보가 교류되는 가운데 불교 교류가 함께 전개되었다. 진정국사와 법조의 직접적 교류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려 무신집권기 정국을 주도한 최이와 교류가 있어 불교 교류 이외 정치・외교적 교류도 추정할 수

있어 향후 검토할 과제이다.

진정국사와 남송 연경사의 교류 관련 자료는 그의 문집인 『호산록』에서 확인되며, 진정국사는 1258년 수선사의 탁연을 통해 연경사에서 보낸 「佛舌銘」, 「조사찬」, 「정토원기」를 받아보았고, 1262년에는 「법화수품찬」을 받아보았다. 또한 탁연이 연경사 법언에게 받은 『佛居記』를 수선사 원오국사 천영에게 보였는데, 이로 미루어 진정국사는 탁연을 매개로 연경사의 제31대 주지인 법언과 교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국사가 연경사와의 교류를 통해 찬술한 정토원기, 조사찬, 초암록, 법화수품찬, 법우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진정국사는 송 진관의 「정토원기」를 보고 연경사 정토원의 풍광과 수행자를 칭탄한 「정토원기」를 찬술하였다. 「조사찬」은 史浩의 「明州寶雲四祖師贊」에 대해 天台智者・寶雲祖師・法智尊者・慈雲懺主의 순서로 조사별 사적을 찬술하였다. 또한 진정국사는 연경사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草菴錄』의 「日本國師遙獻金字蓮經事」를 보고 「金字法華」를 지었고, 宗曉의 『寶雲振祖集』에 수록된 「法雨堂題名」을 보고 「法雨堂」이라는 시를 지어 찬하였다. 진정국사가 송 연경사에서 받은 「법화경수품찬」은 연경사의 여러 존숙이 찬술한 「법화수품찬」을 모아 1권으로 만든 것이었다. 진정국사는 이에 차운하여 연경사의 존숙에게 「법화수품찬」을 보냈다.

진정국사의 「법화수품찬」 교류 이후 백련사와 연경사의 교류 관련 기록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1270년부터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출륙 천도와 함께 삼별초의 난 등이 겹치는 시기였고, 삼별초의 진도 주둔과 함께 백련사도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후 백련사의 진정국사와 송 연경사의 교류는 1270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연경사 역대주지 계보를 활용하여 진정국사와 연경사의 교류를 검토하였다. 특히 제27대 불광 법조의 천태교학이나 사상은 고려후기 백련사나 진정국사의 교학이나 사상경향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검토하지 못하였다. 향후 진정국사와 교류한 남송의 천태종의 천태교관 및 사상경향, 정토신앙, 참회 등의 비교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嘉興藏』
『乾道四明圖經』
『高麗史』
『樂邦文類』
『大覺國師外集』
『大正新修大藏經』
『卍新纂續藏經』
『妙法蓮華經玄義』
『法華三大部讀敎記』
『寶雲振祖集』
『佛祖統紀』
『四明尊者敎行錄』
『釋門正統』
『釋氏稽古略』
『續佛祖統紀』
『宋文憲公護法錄』
『新續高僧傳』
『新編諸宗敎藏總錄』
『中國佛寺史志彙刊』
『眞靜國師湖山錄』
「天台智者大師齋忌禮讚文」
『韓國佛敎全書』
『杭州上天竺講寺志』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1.
박용진, 「고려시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해상 불교교류」, 『한국학논총』 5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9, 101-135면.
오지연, 「고려시대 법화삼매참법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백련사계와 묘련사계의 법화참법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01, 2022, 157-188면.
장동익, 『宋代麗史資料輯錄』, 서울대 출판부, 2001.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허흥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島地大等, 『天台敎學史』, 明治書院, 1929.
安藤俊雄, 『天台思想史』, 法藏館, 1959.
林鳴宇, 「新出資料延慶寺歷代住持譜の意義」, 『繹學硏究』 87, 2009.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中華電子佛典協會 (https://cbetaonline.dila.edu.tw)
중국국가도서관 (http://read.nlc.cn)

【Abstract】

Exchange between Baekryeonsa and Song Dynasty's Tiantai Sect in the late Goryeo Dynasty
—Focusing on the exchange between Jinjeong-guksa and Song Yanqingsi(延慶寺)—

Park, Yong-Jin*

This paper analyzes the exchange activities between Baekryeonsa and Song Yanqingsi through the genealogy of the Chief Priests and other related data in the late Goryeo dynasty, focusing on the data contained in Hosanrok of JinJeong-guksa, the 4th Chief Priest of Baekryeonsa.

The first record of exchanges between Goryeo Buddhist circles and Yanqingsi was between Ui-cheon and Mingzhi-zhongli (明智中立) and then there were exchanges between Goryeo envoys and Yuanzhao-fanguang (圓照梵光) in 1126, 'ChoiSeungsang (崔丞相)' and Foguang-fazhao (佛光法照) during the Military Vassal Regime, and Jinjeong-guksa and Fa-yan (法言) in 1258-1262.

JinJeong-guksa interacted with Yanqingsi through Suseonsa's Tag-yeon, and Fa-yan's teacher was Foguang-fazhao, who led the Buddhist world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Fazhao was a high-ranking member of Official Priet (僧官) and was closely related to the Southern Song regime. Choi Yi, who led the government during the Goryeo Dynasty, is believed to have interacted with Fazhao, as well as political and diplomatic exchanges other than Buddhist exchanges.

In 1258, through Suseonsa's Tag-yeon, Jinjeong-guksa received the「Bulseolmyeong」,「Josachan」, and「Jeongtowon-gi」from Yanqingsi, and in 1262 received the「Beophwa-supumchan」written by the Buddhist monks of Yanqingsi. In particular, Jinjeong-guksa wrote「Beophwa-supumchan」and sent it to Yanqingsi.

It is presumed that exchanges between Baekryeonsa and Yanqingsi were cut off around 1270 after the exchange of the「Beophwa-supumchan」by Jinjeong-guksa. Thi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

is related to the stagnation of Baekryeonsa,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domestic situation in Goryeo, such as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Gaegyeong by the Goryeo government and the stationing of Sambyeolcho in Jindo.

Keywords: Baekryeonsa Temple, Jinjeong-gugsa, Yanqingsi Temple, Tag-yeon, Fa-yan (法言), Foguang-fazhao (佛光法照), Beobhwa-supumchan.

접수일: 2022.06.27.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17.